

해남, 스포츠마케팅 3년 연속 최우수

전남도 동·하계 훈련 실적평가
올 9만7,000명 목표 유치 추진
185억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해남군이 전남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군에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최우수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1년 하계 및 2021년 12월~2022년 2월까지 동계기간 동안 해남군은 14개 종목에 4,319명 연인원 3만 2,778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해남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전지훈련 전체 방문팀의 16.17%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찾으면서 스포츠마케팅 선진지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스포츠인프라, 전지훈련팀을 위한 재활 캠프 운영, 선수단과의 맨투맨 마케팅 방식의 전지훈련 서비스 등 차별화된 마케팅이 한몫을 했다.
또, 일찍부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지훈련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전지훈련을 추진해 온점이 주요했다.
스포츠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해남군은 올 한해 9만 7,000명을 목표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지훈련단 유치를 추진

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연인원 5만 2,1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내 숙박업소 및 식당에서는 벌써 8월까지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활성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으로, 군은 올해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통해 185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남도의 스포츠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상가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배구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팀이 해남군을 찾아 훈련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산림자원연구소 내 산림치유관에서 모종 심기를 시작으로 텃밭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산림자원연구소, 텃밭 가꾸기 운영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나주시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함께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심신 회복과 안정을 위한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 보건소는 산림자원연구소 내 조성된 치유텃밭인 산림치유관에서 모종 심기를 시작으로 텃밭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치유관은 지난 해 10월 보건소와 연구소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조성됐으며 이날 개장식을 가졌다.
올 연말까지 ‘힘내요! 기운내요! 힐링해요!’

를 주제로 치매 어르신과 고위험군 12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 1텃밭 맞춤형 치유 텃밭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텃밭에 가꾸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산약초, 잎삼 채소류, 계절별 모종 심기, 제조, 관수 등 관리와 작물 수확 등 다양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지표를 산출하고 산림자원연구소는 치유효과 측정검증을 위한 참여자 사전·사후 뇌파검사, 맥파 체크 등 생리적 지표를 검증하기로 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진도, 구름숲아토리(주)와 정신건강 증진 협약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구름숲아토리(주)가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신 건강 증진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추진 ▲정신건강문화 확산과 직업 체험 기회 제공 등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름숲아토리(주)는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내 소외계층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커피 클래스, 진도 민속문화체험 활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발전과 재능 발굴에 힘쓰고 있다. /진도=박병호 기자

함평, 호남 대표 의병장 죽봉 김태원 충혼비 재건립

순국 114주기 애국정신 기려

호남의 대표 의병장 죽봉 김태원 선생을 추모하는 충혼비가 최근 함평공원에 재건립됐다.
(사진) 함평군은 5일 “김태원 의병장 순국 114주기를 맞아 선생의 의로운 넋을 기리고 자주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충혼비 재건립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함평 군민들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선생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함평공원에 선생의 충혼비를 세웠으며, 1993년



재건립했다. 그러나 1993년 건립된 충혼비 비석의 기단 모양이 일제의 영향을 받은 데다 비문의 내용에

도 오류가 있어 재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함평군 관계자는 “호남 지역의 항일 의병을 이끌었던 선생을 기리는 충혼비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부끄러운 마음뿐이었다”며 “이번 충혼비 재건립으로 선생의 숭고한 항일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원 의병장은 1907년 호남창의회맹소 선봉장으로 나서며 호남지역 항일 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일본 기병의 기습으로 전사했으며, 1962년 그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함평=윤예중 기자

김옥연 완도소방서장 취임... “안전지킴이 최선”

김옥연 제2대 신임 완도소방서장(사진)이 최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서장은 2003년 소방간부후보 12기 소방위 공채로 임용됐으며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팀장, 보성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과 행정분야, 현장 지휘 경험을 두루 갖춰 직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이다.



고 밝혔다.

김옥연 서장은 “완도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해제면, 적십자 봉사회 결성

무안군 해제면 적십자 봉사회는 최근 해제면 로타리 클럽 회관에서 적십자 봉사회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결성식은 내빈소개, 기본원칙 낭독, 봉사원 25명에 대한 배지 전달식, 봉사원 서약, 안현숙 신임 회장 취임식 및 인사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들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안현숙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적십자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봉사정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며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잊지 않는 모범적인 해제면 적십자 봉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 워크숍

장흥종합사회복지관(관장 양은희)이 최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사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살피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종사자 상호간 화합과 단결로 일체감을

조성,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은희 관장은 “생활지원사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며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지원사로서 일하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생활지원사 스스로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 다시면, 으뜸마을 5개소 조성 구슬땀

나주시 다시면은 정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5개 마을에서 각 마을별 전통과 특색을 살린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 간 소통과 협동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라남도 시책 사업이다.

올해 대상지는 운암, 화동, 동백, 대곡, 신길 등 5개 마을이다.
손선 다시면장은 “길고 긴 코로나 19로 경직됐던 마을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생기가 돌고 있다”며 “분주한 일상에도 마을 가꾸기에 적극 참여해준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조충권 기자